

# 일본인 절반이 ‘아침식사는 빵으로’

## 첨가물 없고 소량 생산 수제빵 선호

〈정리 / 허미경 jpkkyong@mbakery.co.kr〉

일본의 <리빙생활연구소>에서 400여명을 대상으로 ‘2001년 빵식에 대한 여론조사’를 실시했다. 조사는 빵식에 관한 전반적인 설문과 선호하는 빵 및 빵과 어울리는 기호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.

이번 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총 343매로 주요 소비자인 주부들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. <리빙생활연구소>가 발행하는 잡지 <くらHOW>를 통해 발표된 설문내용 및 결과를 발췌해 실는다.

〈설문 1〉 빵은 아침, 점심, 저녁 중 주로 언제 먹습니까?  
 〈설문 2〉 식사대용으로 가장 좋은 빵은 무엇입니까?  
 〈설문 3〉 빵에 발라먹는 제품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 
 〈설문 4〉 빵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〈설문 1〉은 복수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으로 응답자 가운데 91.4%가 아침, 75.1%가 점심이라고 대답했으며 저녁에 빵을 먹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16.3%로 소수에 불과했다. 또한 이 가운데 아침을 빵식으로 하는 사람은 전체의 45.6%로, 밥을 먹는다는 응답(29.1%)이나 기타 응답(25.3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일본인들의 빵식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.

〈설문 2〉는 일본에서 식사대용으로 판매되는 빵의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로 아침과 점심 모두 식빵이 가장 많았다. 그 중에서도 아침식사의 경우는 식빵이 73.4%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. 점심식사는 식빵의 뒤를 이어 샌드위치, 조리빵, 과자빵 등의 선호도도 높게 나왔다. 한편 저녁식사의 빵으로는 식빵이나 조리빵에 비해 프랑스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(표 1 참고).

〈설문 3〉의 빵과 어울리는 기호품에 대한 설문에서 아침식사는 마가린이 24.8%, 버터가 23.9%, 잼이 20.6%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. 반면 저녁으로 빵을 먹는 경우에는 버터가 18.5%, 마가린이 7.7%, 잼이 4.6%로 버터를 선호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.

이외에도 벌꿀, 초콜릿크림, 깨 페이스트 등의 선호도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. 또한 소수의 견 가운데는 한국 김치와 치즈, 토마토를 혼합한 페이스트, 인도풍의 카레, 버터와 김, 치즈의 혼합 페이스트 등 퓨전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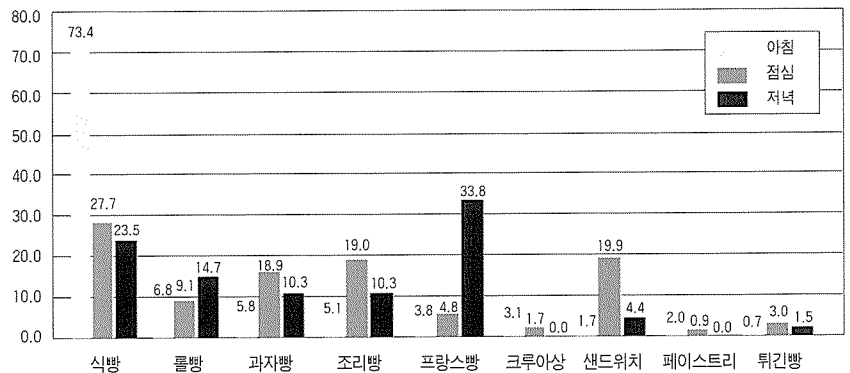
마지막으로 〈설문 4〉의 빵을 선택하는 기준에 관

한 설문문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“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 소량 생산의 수제빵을 선호한다”고 밝혔다. 또한 첨가물이 없고, 천연 발효된 빵,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빵 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빵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.

현재 일본에서는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소량 생산되는 수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 제과업계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(표 2 참고).

〈표 1〉 아침, 점심, 저녁 별로 주로 먹는 빵의 종류(복수응답)

(단위=%)



〈표 2〉 빵을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부문(복수응답)

(단위=%)

